

시민과의 소통과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해법

고준호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jko@si.re.kr)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Road Safety Improvement Based on Communication Techniques

김준기 · 김종학 · 김흥석 지음

국가나 도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그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 혹은 시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자 근본이다. 과거의 소통은 매우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절차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인의 8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 현 시대의 소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기까지 하다. 한편 저성장 시대에 직면해 단기간 내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 정책 수립도 이러한 대세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시작된 연구는 언뜻 보기에 도로교통 정책과는 무관할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키워드로 채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대화’ 혹은 ‘의사소통’이 아닌 ‘시민참여’를 의미하고 있다. 본 보고서

는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의 기능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찾아내는 리포터의 기능, 둘째는 의식개선에 의해 능동적 행동 변화를 보이는 교통 행위자(운전자, 보행자 등)의 기능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으며,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도입의 의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로 전 구간에 걸쳐 저예산으로 안전도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본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의 도로안전 사업은 사업이 시행되는 한정된 구간 혹은 지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국내의 233건의 기존 연구결과

를 활용하는 메타분석을 토대로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운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운전자 개개인에게 전단지·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전략 또한 효과가 큼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분석 대상에 국내 연구 사례수가 부족하여 국내 실정에도 이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지만,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활용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본 보고서는 한 건의 사망 또는 중상 이상의 중대사고 발생 징후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이 실제로 국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로에서의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결국 교통사고의 사전적 예방조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특히 교육·홍보 전략으로 위험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조하는 부정적(공포) 심리보다는 이타적 행동, 생명의 가치, 위험한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 등 긍정적 감정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이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논리로 공포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지며,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젊은 여성 혹은 중장년층 등)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위험상황 발생지점과 그 유형을 자세하게 도면에 표시하여 알려주는 일본의 ‘아차사고 맵’ 작성 사례도 흥미롭다. 이러한 전략들이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빅데이터’다. 이는 운전자들

이 실제로 체감하는 도로 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GIS 분석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빅데이터도 따지고 보면 시민이 생산해내고 제공해주는 가치 있는 정보다. 따라서 이 또한 간접적인 측면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최근 무인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관심은 무인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다양한 편익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과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하니,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무인자동차의 등장은 도로교통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이러한 무인자동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쉽게도 불필요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벽한 무인자동차 기술의 실현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때까지는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공무원에게도 본 보고서의 탐독을 권하고 싶다. ●